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정책 한눈에

‘행정·세계’·‘청년·가족·보육’ 등 총 6개 분야 60개 항목 담은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전주시가 2026년 새해부터 모든 출생 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출산·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시 부과되는 취득세 감면(500만 원 한도) 기간도 오는 2028년 12월까지로 연장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과 인후반촌 어울림센터, 팔복동 신북방앗간 개관을 통해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전주시 산하 기관의 공공일자리 채용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아·JOB’ 운영과 ‘청년성장프로젝트’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처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담은 ‘2026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동주민센터 등에 비치하고,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전주시 정책백판 아나라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중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세계 8건 △청년·가족·보육 13건 △보건·복지·환경 11건 △경제·문화·관광 10건 △국토·교통·안전 9건 △농림·축산·식품 9건 등 총 6개 분야 60개 항목으로 구분해 알기 쉽게 구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행정·세계 분야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및 이행



‘2026년 전주시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지

강제금 감감 대상을 확대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며, 해당 토지에 3년 내 신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세도 최대 50%(150만 원 한도) 감면해 빈집 정비를 촉진기로 했다.

청년·보육·가족 분야의 경우 청년인재 DB(청춘전집) 신설과 청년참여 예산 참여 대상 확대로 청년들의 시장 동참을 활성화한다.

동시에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250%까지 확대하고,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90만

원의 정려금도 지원한다.

이중수당 및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신설 등 보육 경비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환경 분야의 경우 시는 사람유동종바이러스(HPV)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를 각각 12세 남성 청소년과 14세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남성 난임 시술비(최대 300만원)와 난임부부 한방 치료비(최대 180만원) 지원을 신설하고,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내인 자로 확대 지원한다.

여기에 보훈수당을 인상해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기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하며 극한 호우 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경제·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업종으로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탄소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철과일의 소비를 촉진하고,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전주한옥애말’ 출시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책자를 완성·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확대한 정원산업박람회도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전주역세권 혁신관광소설플랫폼이 조성되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도 전면 시행된다.

나아가 시는 가린대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과 더불어 전주-완주 시내버스 시간선제 노선 개편, K-패스 ‘모두의 카드’ 전면 도입을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석면조사 의무화를 시행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관리기준도 강화한다.

끝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이전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높이고, 농식품바우처 지급 대상자를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만 34세 이하 인 자를 포함하는 가구까지 확대한다.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기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과 지역 제철 과일의 소비를 촉진하고,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전주한옥애말’ 출시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책자를 완성·덕진구청 민원실과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지난달 30일 전주지역자활센터와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 ‘맞손’

전주시보건소·전주지역자활센터, 사업 추진 협약 체결

전주시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천 기저귀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지난달 30일 전주지역자활센터와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아기의 유해 화학물질 노출 감소 및 쓰레기 배출량 감소,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아기의 건강한 성장 발달은 물론 환경 보전을 위해 전주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 중인 자체 사업이다.

이날 양 기관은 천 기저귀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유해물질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인 전주지역

자활센터와 전주시는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친환경 천 기저귀 지원신청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완산구=전주시보건소, 덕진구=덕진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0~12개월 영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소 3개월의 이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영아가 9개월이 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한 장애 등 특수한 경우 6세 미만의 아동도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권희성 기자



전주 작은나눔회, 백미 기탁

전주 작은나눔회(회장 이은기)는 지난달 30일 조촌동·여의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설맞이 이웃사랑 나눔 백미(10kg) 74포를 전달했다.

작은 나눔회는 조촌동과 여의동에 거주하는 토박이 지역 주민들 중 지역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하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봉사단체로, 매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매년 경로당 및 취약계층에 성금 및 물품을 전달하는 등 15년째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 새로운 변화 이끌 ‘제10기 청년희망단’ 출발

청년 관련 아이디어 발굴·정책 과제 제안 앞장

전주지역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희망단’이 2026년 새해 전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책을 발굴·제안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전주시는 지난달 30일 청년이음전주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제10기 청년희망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제10기 청년희망단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을 거쳐 18세~39세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주부, 직장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 40명

이 참여하게 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청년희망단원들은 위촉장을 수여 받고, 청년희망단 활동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며 청년희망단원으로서 책임과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들은 앞으로 △기획소통 △일자리 정책 △인구정책 △문화교육 △복지 등 5개 분야로 나뉘어 매달 정기적인 분과 모임을 통해 청년 관련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책 과제로 구체화해 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청년희망단을 운영하면서 △청년정책 온라인플랫폼 청정지대 △지역청년 JOB 소통사업 △청춘시티페딩 △청년

센터 서포터즈 운영 등 청년희망단 위원들이 제안한 정책을 시장에 반영한 바 있다.

시는 청년희망단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제안 초기 단계에서 사업부서 및 멘토 자문을 통해 사업 중복 및 제도 적합성 검토를 강화하고, 정책 참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아이디어 공유 발표회 등 추진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년은 미래의 주역이자 현재의 동력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우리 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청년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희성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최근 국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전주시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가축질병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6일에는 인접 권역인 전남 영광군에서 ASF가 확진됨에 따라 28일부터 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긴급 가동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먼저 재난안전과(재난상황관리)와 동물정책과(방역관리반)를 중심으로 근무조를 편성해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13개 협업부서



실무반 인력을 확대 투입해 재난 대응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와 축사 내외부 소독을 독려하고,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발생 상황과 방역 수칙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농가 자체 방역 역량 강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아울러 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학 관련 차량이나 농가 발생 시 즉각적인 이동 제한과 정밀 환경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